

부활 제 5 주일

#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  
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요한 14,6).

기도서 295면 (A해)  
제1독서 : 사 도 6,1-7  
제2독서 : 1 베드 2,4-9  
복 음 : 요 한 14,1-12

강론



## 진리가 무엇이나?

안 동 기 신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러나 막상 “진리가 무엇이나?”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이분은 침묵을 지키었다.

당시 지도자들의 진리에 현혹된 군중들의 아우성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다. “진리가 무엇이나?”고 물었던 빌라도 그는 군중의 폭동과 그로 인한 카이사르의 문제를 의식했음인지 군중 앞에서 손을 얹으며 무죄한 예수의 처형을 허락하였다. 이 또한 빌라도의 진리였으리라.

진리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과연 진리는 무엇일까? 의문 속에 침묵을 지키시는 예수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인간의 절대성을 선포하였고 아버지 안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며 무지로 인해 자행되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였다. 이분의 이러한 삶이 빌라도와 그의 용서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아닐까?

비록 천갈래 만갈래의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을지라도 너와 나 그리고 그의 보다 나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방식이라면 그것은 곧 진리이다. 이 진리는 불가침의 인간 존엄성을 인정하고 “우리 아버지” 안에서 모든 인간의 형제성을 고백하며 용서와 화해 안에서 원수와 의 제회를 의미한다. 이 진리는 실존과 보편이 다양과 일치, 그리고 자유와 조화가 함께 하는 진리이다. 이 진리는 내가 살기 위해 너를 죽여야 하거나 네가 살기 위해 나를 죽여야 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며 너와 나 곧 우리가 살기 위해 그를 죽여야 하는 삶의 방식도 아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예수에게서 모든 민족과 모든 곳에 가라고 하신 예수에게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예수에게서 발견되듯이 인간을 위한 한계성을 거부하는 삶의 방식이다. 그러나 한계성을 지닌 인간이 어떻게 한계성을 거부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행동양식이 인간의 삶(함께, 창조,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졌을 때 가능하다. 행동양식이 목적을 위함이 아니고 인간 삶에 초점이 맞추어졌을 때이다. 너와 나 그리고 그는 천부적으로 서로 다른 보완적 특성을 받았기에 함께 하지 않는 한 창조도 구원도 될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위격의 불가침성처럼 불가침의 내적주의성을 지닌 우리는 상호의 내적 주의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결코 형제에 대해 외적 주의성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오직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리이며 우리는 이 진리를 예수의 말씀 안에서 체험한다.

(시기동 전주교회)



## 창피한 일

한 여당의원은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대중씨에 대해서도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소멸됐으면 멧멧하게 재수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수백명의 경찰로 밤낮 집을 에워싸고 있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이치호, 11일 법사위 질의). 사람 하나를 수백명이 여러날 에워싸고 있는 것이 꼴사나우니, 요새말로 「법대로」 하라는 말이었다?

세상엔 창피한 일들이 참으로 많다. 덜씩 큰 놈들이 조그만 아이 하나를 옥박지르고 쥐어박는 꼴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가 하면, 외국선수를 불러다 놓고 챔피언을 가리는데, 수세에 몰리던 제나라 선수의 손이 어물쩍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에도 창피함을 느낀다. 창피함이란 “체면이 각질 일을 당하여 부끄러움”이나 “모양이 사나움”을 말한다.

무게가 기운 모습은 그 꼴이 참으로 사나움다. 그것은 형평의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것이 법의 적용에서 무너졌을 때에는 살맛조차 없게 되고 만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은 그런 꼴을 보기도 쉽게 체념해버린다. 어쩌면 체념의 도를 넘어,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더 익숙해 있는지도 모른다. 성고문을 당한 권양과 그녀에게 폭행을 가한자를 이땅의 법은 어떻게 저울질했는가? 정녕 이땅의 법의 저울은 고장나고 말았는가? 연속되는 갖가지 사건들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아픔을 뼈 속깊이 느낀다.

무엇이 참으로 창피스러운 일인가? 4·13 개헌유보조치에 반대의 의견을 말해서는 안되는가? 자기의 소신을 밝히는 것도 죄가 되는가? 단식과 성명발표를 의법조치할 수 있는 일인가? 어떤 소시민은 담배를 끊겠다고 하고서, 어쩌다 담배를 한 대 피운 일에 창피함을 느낀다고 한다. 어떤 이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날이 창피스럽다고 말한다. 무엇이 진정 우리를 창피스럽게 하는가?

## 숲 정 이 산책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 “본당 분담금으로 피정의 집 짓고

## 개인 헌금으로 치명성지 개발하자.”

우리 고장 조상들이 남기신 신앙의 유산이 아무리 고귀하더라도 후손인 우리가 받들고 계승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다. 우리가 자치교구설정 5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그날의 기쁨과 영광을 가져다 준 조상들의 표양과 정신이 오늘의 이 시대와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함을 각성하고 내가 실천하고 싶은 충동의 표현이다. 당하고 싶지 않은 죽음,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이지만 무엇이 좋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가 선택하며 좋지 않은 생활태도는 어찌 믿는 사람들에게만 교훈이 되겠는가. 가치관이 혼돈을 일으키고 인생관이 불분명해지는 현실의 사람들이라면 웃것을 여미고 생각해 볼 일이다.

세상은 다 변하여 지나가도 영원한 진리와 생명만은 최후에 남는 것이다. 이 최후의 가치를 내 것으로 다잡고 거기서 삶의 참된 보람을 찾고 나누기 위해 우리는 천호성지에 「피정의 집」을 건립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본당에 활당한 분담금에 내가 바친 동전 한 닢은 보잘 것 없는 액수가 아니다. 한 알의 흙이 한 알로 있으면 먼지이지만 쌓이면 태산이 되듯 한 닢의 정성이 9만 신자에 신앙의 도장을 지은 것이요 결국 내가 지은 것이다. 「피정의 집」은 우리 자신을 위한 내 집이다.

우리의 정성은 이제 더 소중하고 보람된 일을 해야겠다. 우리 교구에는 유수한 성지가 많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조해야 할 것은 세계 역사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부동정 순교자이다. 우리나라가 정히나 자랑 할 일이 없더라도 그분들의 정신은 이의없이 내세울 수 있는 정신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치명자산」을 개발하는 일과 그 일에 동참할 때도 바로 지금이다. 우리가 그분들의 정신을 빛내는 일에 소홀히 하면 교황청이 우리의 무슨 정성을 보고 그분들을 복자위에 올리겠는가. 우리는 더 높은 세계와 더 큰 가치를 위해 살으셨던 그분들을 존경하는가. 그러면 행동으로 표현하자.

우리의 마음은 다시 이렇게 뭉치자. “분담금으로 피정의 집 짓고, 개인 헌금으로 치명성지 개발하자.” 그러한 취지에서 10만원 1구좌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자치교구설정 50주년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에 우리 모두 뜻을 모아 동참하자.

\*개인 봉헌 개별접수—사무처

교구설정 50주년 재정분과위원회

—장애자주일을 맞이하여—

### 「함께 사는 삶」

오늘은 7번째 맞이하는 장애자 주일입니다. 일찌기 주교회의에서는 장애자의 재활 자립의지를 고무하고 장애자에 대한 교회와 사회의 관심을 진작시키기 위해 오늘을 장애자 특수 주일로 정한 것입니다.

장애자 문제는 더 이상 장애자 자신들의 개인적 노력에만 맡겨둔 채 방치할 수 없는 긴급한 사회문제로 파악하고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장애자 주일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장애자들을 많은 편견으로 대해 왔으며 이들에 대한 정신적,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높이 쌓은 채 살아온 것이 사실이며 인간을 생산능력에 결부시켜 평가하는 기능주의적인 가치관과 그를 기초로 한 국민적 태도와 각종 사회제도 등이 오늘날 장애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데에 치명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자의 문제가 사실은 장애자의 문제가 아닌 정상인의 문제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약한 장애자를 거부하고 소외시키는 사회는 그 자체로써 결함을 지닌 사회. 곧 장애 사회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장

애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그 사회 구성원 누구라도 완전한 의미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그가 지니는 신체적 상황에 관계없이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 창조된 지극히 존엄하고 가치있는 존재임을 확신합니다. 신체의 장애는 인간존재의 본질적 차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내신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장애 상태야말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암흑의 상태라 할 것입니다.

교구에서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사회복지를 5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재단설립에 부실하고 있고 그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차체에 모든 장애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스승이신 예수의 모범을 따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웃」—에게 힘과 용기, 지팡이가 되도록 이 기회에 다짐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함께 사는 삶을 실습해야 할 것입니다. (교구 사회복지회)

전북 의료보험조합 지정  
**김 안 과 의 원**  
 부설 : 신세계 안경  
 국제 콘택트렌즈  
 원장 김 호 열 · 전 은 주(베로니카)  
 전주 교아백화점 옆 · 중앙성당 앞  
 전화 74-3020

**김 홍 수**  
 이비인후과의원  
 전문의 김 홍 수  
 의학박사  
 전주시 교사동 1가 34-2  
 (외환은행 옆 2층)  
 전화 2-2777

**천연 알카리 생수**  
 (충북 미원본당 발굴)  
 회원 모집중(선착순)  
 전주동우회 5-4205  
 (센타 2층)  
 이리 " 52-5595  
 군산 " 64-4481  
 대표 박병준 신부  
 가정도착가격 10ℓ 1,500원  
 전주교구장 인준단체입니다

# 교 구 소 식

※ **성모 성년 선포 장엄미사 및 아버지 효도 기념행사**  
 일시-1987년 5월 25일(월) 오전 10시30분-성년 선포 및 장엄미사  
 오후 1시30분-아버지 효도행사 및 교구장 회갑 축하식  
 장소-전주 실내체육관

- ※ **축! 견진: 24일-문율동 천주교회, 주례-박정일 주교님**
1. **재정심의회: 19일(화)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회의실**
  2. **5월중 레지아 회의: 17일 오후 2시, 장소-전동 천주교회**  
 참석대상-산하 평의회 간부 및 직속 브레시디움 간부 전원
  3. **제 4기 심성계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존엄성을 공감하고 성취동기와 자기신뢰감을 증진시키며, 정서순화 및 원만한 인간관계를 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시-23일 오후 3시~24일 오후 5시, 장소-가톨릭센터 회의실, 회비-13,000원 (교재 포함), 지도-신유희 선생님, 접수-19일까지 교육유료(접수순 25명)
  4. **성모성년 경축 특별피정: 주례-말씀과 성령과 마리아**  
 일시-6월 6일(토) 오전 9시40분-7일(일) 오전 6시, 장소-전주 해성 중·고등학교 강당(윤호관), 초청강사-박정일 주교, 김환철 신부, 김정원 신부, 오기선 신부, 이인복 교수, 김발다살 회장, 참석대상-모든 교우(예비교우 환영)  
 참가비-1,000원(도시락 각자 지참)
  5. **제17차 주말 M·E 재모임: 24일(일) 오후 3시, 장소-가톨릭센터 3층**  
 (소개모임은 24일 오후 2시30분 M·E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6. **교구청 직원 소풍관계로 18일(월)은 휴무입니다**
  6. **천주교 전주교구청 전화번호 변경안내: 87년 5월 25일부터 5-0041~43을 전화국 국번 변경으로 인해 85~0041~43으로 바뀌게 될을 알려드립니다**

※ **축! 영명: 성 에릭(18일)-윤에릭 신부님, 성 디디에(23일)-지정환 신부님**

**10만인 성지순례(순정이→치명자산, 오후 2시)**

일	담당 신부	일	담당 신부	일	담당 신부
17(일)	최상범 신부	23(토)	박중진 신부	24(일)	이덕근 신부

## ✿ 잠 간!

「가정의 말을 맞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사회가 변천됨에 따라 가족제도에도 수많은 변화가 일게 되었다. 자녀들은 도시로 나가고 부모님들은 고향에 남게 되는 게 현실이다. 핵가족을 표방하는 현대사회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귀찮게 여겨질 뿐 아니라 사사건건 간섭한다고 생각될 때 표현할 수 없는 갈등이 쌓이게 된다.

그리하여 효를 정신적 지주로 삼았던 조상들의 전통과 가치관이 무너지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효행이 구태의연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일축해 버리기 쉽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전수시켜준 분으로서 부모님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으로써 오히려 더욱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자녀들의 정성된 마음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아닐까?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데는 사실 가족들 모두가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 믿는 이들의 가정- 다른 그 어느 가정보다 화목해야 되고 사라져가는 효행의 가치를 회복시키고 좀더 따뜻한 사랑의 가정으로 꾸려나가야 할 것이다. 성가정의 모습의 새롭게 목상하고 아버지 성부님께 지극한 효자였던 예수님의 효성의 생각하면서...

## 요십이 (719) 김병오



### □ 1분 명상

네 앞길  
 주께 맡기고  
 그를 믿어라  
 몸소 당신이  
 해주시리라.

-시편 37,5

### 명동피부과의원

#### 베소라성서 강의 사탄 대 그리스도

-인간의 힘이나  
 하나님의 힘이나-  
 (마태 12: 22~29,  
 마르 3: 20~27)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장소: 센타 3층  
 강사: 김정원 신부  
 회비: 매주 1,500원

## 황수경 산부인과 의원

여 의 사 황 수 경  
 산부인과전문 의 활 수 경  
 (크리스티나)

이 승 열(엘리아)

☎ 전주 2-7272

관동로 서울신탁은행건너편 골목

## 내과 전문의

## 위 상 양 내 과 의 원

전주시 교사동 2가 1-13

(완주농협·우신호텔 앞)

☎ 병원 4-1225 자택 75-0034

위상양(프란치스코) 김병희(글라라)

북 전주지구 본당소식

(중앙)

사제관 5-1713 주임신부 설민호
사무실 5-1711 보좌신부 윤양호
수·유 5-1712 사목회장 엄의도

- ☆ 반미사안내 : 20일 오후 8시, 3반-
1. 첫영성체 6월 14일
교리-화·수·목·금요일 오후 4시30분
2. 견진 : 성신강림대축일(6월 7일)
신청 및 접수-다음주부터 사무실
3. 모임 : 울뜨레아-오늘 공식미사 후
푸리아-오늘 오후 2시
4. 주일학교 소풍 : 다음주일, 덕지 왕능
5. 본당신자 및 레지오단원 성지순례 : 6월 21일
장소-여산성지 및 미리내성지, 회비-4천원
6. 성체회 : 지속적인 성체조배에 빠지지 맙시다
7. 신학생 후원회 : 1주좌-매일 1천원(사무실 접수)
8. 교구 50주년 기념사업 및 본당 30주년 기념사업
신입 및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975,250원 교무금 : 517,500원

(금암)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3-1653 사목회장 소완영
수녀원 76-0961

- 1. 오늘은 선교주간 : 푸리아 회의-오늘 오후 2시
2. 차주는 애령주간 : 기도회 있음(예규책 지참)
2차헌금 있음
3. 안나회 월례회 : 21일 오전 10시
4. 성년선포 장엄미사 및 어머니 호도행사 : 25일
오전 10시30분, 장소-실내체육관
6. 전신자 성지순례 : 6월 14일, 배론성지
참가비-5천원
6. 유아세례 : 29일 미사중
※ 대상자는 미리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7. 성모의밤 행사 : 30일 저녁 8시30분
푸르실로 울뜨레아 : 차주 공식미사 후
8. 감사 : 공동체목상회에 참석하신 형제·자매님께 감사
신축헌금 : 십전속-2만원, 조점배-1만원, 김종환-
20만원
9. 금주복사 : 권철주·김중구 차주 : 김명수·김옥기
10. 금주봉헌 : 조규상 부부 차주 : 김갑기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543,330원 교무금 : 271,000원
신축헌금 : 230,000원

(덕진)

사제관 72-6107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3-2182 보좌신부 최상범
수·유 72-1222 사목회장 김낙현

- 1. 오늘의 모임·행사
curia 오후 2시-2층 회합실
성모회-공식미사 후
중·고생 체육대회-체육공원(학생미사 후)
2. 청소년 분과모임 : 23일 저녁미사 후, 사목회의실
3. 청년연합회 주최, 부활영세자(젊은이)와의 만남
24일 저녁미사 후, 2층 회합실
4. 부활영세자 참회예절 및 첫 고백성사
29일 저녁 8시, 성당
5. 성모의밤 행사 : 30일 저녁 7시30분
6. 본당 소풍 : 31일(장소 및 일정은 차주 발표, 이날은
새벽 및 저녁미사만 있고, 승천대축일 야외미사로
봉헌합니다)
7. 금주 성당청소 : 사도의 모후 pr-23일 오후 2시
8. 숭현성전 신축헌금 납부 : 적극 협력바랍니다
현재 신입총액-184,440,000원
(L·M 추가액-5,254,000원)
9. 농번기중(23일~6월말) 본당 새벽미사 있음
□ 지난주 봉헌금 : 646,460원 교무금 : 130,000원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권이복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한상갑

- ☆ 미사시간 : 내동(오전 7시), 공식(10시30분)
모든 저녁미사(8시30분)
☆ 다음주일은 본당설립 3주년

- 1. 행사계획 : ①전야제-오후 8시30분~10시
제 1부-성가발표회
제 2부-성도의밤(초·단체별 화분준비)
②본당의날 감사미사·운동회
(오전 11시~오후 5시, 조촌교구)
③외곽교우 및 지역주민 초청
(오후 7시30분~9시, 교육관)
2. 금주 구역미사·모임 : 화·금요일 8시30분
19일 : 미사-동1구역, 모임-팔5(서옥례씨 댁)
20일 : 나눔잔치-농원, 22일 : 미사-동5구역
3. 모임안내 : 푸리아 회의-오늘 공식미사 후
구역장 회의-28일 오후 8시
4. 금주전례 : 해설-김택천, 독서-①김준권 ③김진순
차주전례 : 해설-한기철, 독서-①박영철 ③최병길
5. 본당청소 : 금주-은총의 어머니
수녀님 가정방문 : 매괴의 모후
□ 지난주 봉헌금 : 241,410원(내동 13,350원)
교무금 : 108,000원 나눔의날 헌금 : 39,420원

(순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박해근
수녀원 3-9567

- ☆ 개인 및 단체별로 소성당에서 지속적인 성체조배를
드립니다(오전 10~오후 9시)
1.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소풍. 동물원
2. 초등부 교사 야유회 : 23일, 장소-화엄사
시간-7시30분 본당 집결
3. 제대회 : 23일 오전 10시
4. 성전정화사업 : 그동안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리며 아직 신입하지 않은 세대는 신입하여 주시고
신입하신 세대는 납부에 협조바랍니다
5. 성모성월 성모ноп경 9일기도 : 21일~29일, 저녁9시
많은 참여바람
6. 6월반 예비자 모집 : 주일반, 신부님납(목요일 저녁)
7. 구역모임 회의록을 사무실로 내주세요
8. 미사안내 : 바다의 별
9. 금주 본당청소 : 화-하늘의 문, 토-증거자의 모후
10. 금주전례 : 해설-홍성조, 독서-기도-김남곤·이영희
봉헌기도-윤규삼·김시자
차주전례 : 해설-홍성조, 독서-기도-김창현·민복순
봉헌기도-윤홍진·양영아
□ 지난주 봉헌금 : 406,660원 교무금 : 309,100원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용복
사무실 75-6389 사목회장 김병문
수녀원 75-6389

- 1. 성경문제 답안지 제출해 주신분 : 137명
만점자-남복희·황정숙·박천수·오계순·유정희
한문제 틀린분-27명(정답은 벽보에 게시됨)
2. 미사 때 매일 미사책과 성가집을 지참하세요
3. 신학대학 및 수도원(수녀원)에 가실 분은
1년전에 본당신부님과 면담바랍니다
4. 첫영성체자·영세 및 고백성사 : 23일 오후 3시
첫영성체 : 24일 오후 4시
5. 모임 : 제대회-21일 어머니미사 후
성가대-22일 오전 11시(고려회관)
6. 성모의밤 행사 : 29일 저녁 7시30분
7. 주일헌금에 관심을...
헌금은 정성을 다하여 봉헌합니다
8. 금주청소 : 셋별의 모후-18일
9. 금주전례 : 해설-이순영, 독서-①강진근 ③이복희
봉헌-김종표 부부, 안내-채수원·이완
차주전례 : 해설-최명자, 독서-①양기춘 ③이은선
봉헌-신용진 부부, 안내-김병문·최운선
□ 지난주 봉헌금 : 381,440원